



인류 의학계에 혁명

40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노벨의학상을 타고도 남을 정도로 의학계에 혁명을 일으킨 이름난 한의사 허준.

허준이 완성한 동의보감은 그의 깊은 철학과 넓은 경험이 응축된 것이기에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 지금도 계속 번역판이 발간되고 있다.

특히 첨단의학을 자랑하던 미국과 유럽에서까지도 중요한 의서중의 하나로 발간되어 그 찬연한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

당시에 특허제도만 있었으면 백여건의 의약특허도 받았을 것

세계 제일의 명의 어준

- 특허제도만 있었으면 100여건의 의약특허 가능 -

이 분명한 허준. 동의보감 25권에 담긴 보배같은 내용들은 동양 제일의 명의였던 그를 400년이 지나서야 세계제일의 명의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들어 그 생애는 소설과 TV드라마로서까지 명성을 떨치고 있다.

세계적인 의사 동의보감

동의보감의 특징은 책의 서문에 기록되어 있다.

허준은 서문을 통해 '중국의 의학서가 부족한 곳이 많아 모든 의학서를 참고하여 다시 저술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에 혼한 약재를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정리했다'고 설명하고, '모든 병은 선생에 원인이 있으니 수양을 먼저하고 아울러 약을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의보감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이 자랑하는 '본초서'보다

한발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재의 기원은 물론 약효와 산지까지 저술되어 있음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탕액본초' 편에 실려있는 4백2종의 약재중 90종의 약재는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허준은 약재의 국산화에도 정열을 쏟았다. 중국에서 수입하던 감초, 마황, 영통향, 안식향등에 대한 재배시험과 대용 약재를 개발한 결과를 동의보감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의사이자 발명가이자 식물학자였던 허준. 허준의 동의보감은 우리 한의학의 진가를 전세계에 심어준 불멸의 업적이라해도 무방 할 것이다.

허준의 공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왕실과 양반 중심으로 쓰여진 의사들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글판으로 저술하기도 했다. 태산집요, 언해구급방, 창진집요 등이 그것으로, 여기에서 그의 깊은 박애정신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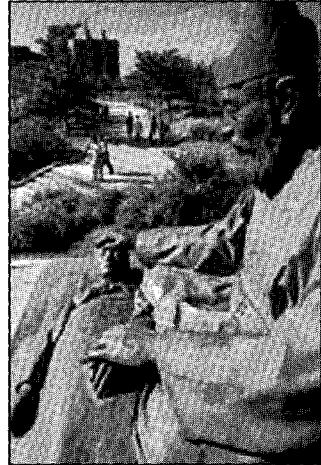
동의보감은 1613년 관판으로 개간되어 그 초간본이 지금도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다.

우리민족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세계 의학 백과사전'으로 자리를 굳힌 동의보감의 저술인 허준.

허준은 동의보감을 완성한 공로로 임금에게서 말 한필을 상으로 받았다. 또한 어의한 대부지종임부사와 양평군 승록대부에 봉해지는 영예를 차지했다.

그리고 1615년 8월 13일 눈을 감을 때까지 백성들의 질병 치료를 멈추지 않았다.

4백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공로가 재평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채.



보기 좋은 띄어 먹기도 좋다?

- 상품에 날개옷을 달아라 [의장등록] -

최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IMF이후 움츠려들었던 경기회복과 더불어 98. 3월부터 의장무심사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의장조기권리화가 가능해졌고, 99년 1월부터 특허청의 인터넷출원시스템인 특허넷의 도입으로 출원이 간편해지고 용이해졌다. 현대는 기술의 보급으로 품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기업에서 타사제품과의 차별화전략으로 디자인을 등장시키고 있다. 디자인으로 성공한 중소

기업들이 다수 떠오르면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등록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의 상품은 기술이나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어떠한 옷을 입혀 시장에 출시하느냐에 따라 히트상품이 되어 문자 그대로 날개돋친 듯이 잘 팔려 나갈 수도 있고 하루살이 상품

으로 금방 사라져버리는 수명이 짧은 상품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신세대를 겨냥한 상품의 경우에는 품질보다 오히려 디자인에 따라 고객흡인력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비중있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디자인의 보호와 직결되는 의장등록출원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

발행 2000/2·3